

心積과 腎積에 대한 文獻的 考察

이재흥* · 지정옥** · 김경요*** · 이기남****

大韓氣功醫學會

1. 서론

積을 內經이후의 文獻을 통해 보면, 《內經》에서는 積, 積聚¹⁾, 積氣²⁾, 積水³⁾, 積筋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積과 聚의 개념이 內經이전에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難經》에서는 『五十五難』과 『五十六難』에서 《內經》에는 언급이 없는 積과 聚의 차이점과, 五積에 대한 언급이 있다.⁵⁾ 이중에 五積에 대해선 《內

經》에 그 용어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心積, 肝積, 肺積의 별칭에 해당되는 伏梁, 肥氣, 息積의 용어가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⁷⁾ 이로 보아 五積에 대한 개념 역시 《內經》 이전에 성립이 되었으며, 難經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傷寒論》에서는 五積중에서도 특히 奔豚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었다.⁸⁾

이외에도 《內經》에서는 積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積에 해당되는 腸覃, 石瘕 등에 대한 언급도 있다. 또 《傷寒論》에서 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結”이라는 표현으로 結胸, 藏結, 支結, 熱結, 小腹痛結이라는 表現을 써서 積의 종류에 해당되는 다른 표현을 썼다.⁹⁾

* · *** 원광대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 **** 원광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1) 洪元植 譯：黃帝內經靈樞，서울，傳統文化研究會，1992，p.320；《靈樞·五變篇》에서 “黃帝曰：人之善病腸中積聚者，何以候之。”
- 2) 洪元植 譯：黃帝內經素問，서울，傳統文化研究會，1992，p.72；《素問·五臟生成篇》에서 “有積氣在中…”
- 3) 上揭書 p.532；《素問·解精微論》에 “水宗者 積水也.”
- 4) 洪元植 譯：黃帝內經靈樞，p.408；《靈樞·五味論》에 “陰者 積筋之所宗也.”
- 5) 扁鵲 著 滑壽 注：難經本意，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서울，大星文化社，1995. Vol.1，p.492；《難經·五十五難》에서는 “五十五難曰，病有積有聚，何以別之。然，積者，陰氣也，聚者，陽氣也。…”라하여 積과 聚에 대한 구별 및 차이점을 서술하였고, 『五十六難』에서는 “五十六難曰，五藏之積，各有名乎。以何月何日得之。…”라 하

여 五積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 6) 洪元植 譯：黃帝內經素問，p.280，p.241；《素問·奇病論篇》에 “病名曰 息積 此不妨於食”，《素問·腹中論》에 “病名伏梁 此風根也”라고 하였다.
- 7) 洪元植 譯：黃帝內經靈樞，p.60；《靈樞·邪氣藏府病形篇》에 “心脈微緩爲伏梁… 肝脈微急爲肥氣，…肺脈滑盛爲息贲上氣..”라 하였다.
- 8) 李培生 主編：傷寒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127，p.124；“發汗後 其人 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 主之.”，“燒鍼 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小腹 上衝心者 灸其核上 各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三兩.”라 함.
- 9) 《傷寒論·條文100》에 “血弱氣盡 腠理開

이후의 文獻에서는 이러한 積聚의 내용을 좀 더 세분하여 구분하였는데, 《內經》에서 제시한 積의 개념이나 형성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단지 그 종류를 좀더 세분하여 이해하였다. 결국 東醫寶鑑을 보면, 五積, 六聚, 七癥, 八瘕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또한 《李中梓·醫宗必讀》에서는 酒積, 氣積, 血積, 痰積, 水積, 茶積, 癖積, 穀積, 肉積, 蜜積, 菜積, 麵積, 魚鱉積, 狗肉積, 蟲積, 瘡積 등의 여러 가지 原因別 積에 대한 나열도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積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五積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이런 五積 중에서 臨床적으로 출현양상이 잦은 心積과 腎積에 대한 文獻的 研究를 통해서 積을 臨床적으로 연관시키는 발판이 되고자 하였다.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結於脇下”라고 한 것을 보면 《靈樞·上膈篇》에서 “...衛氣不營, 邪氣居之. 人食則蟲上食, 蟲上食則下管虛, 下管虛則邪氣勝之, 積聚以留”에서 말한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傷寒論에서는 “積”이라는 표현대신 “結”이라는 표현으로 積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11. 雜病篇 卷之五-八, p.178 ; 六聚는 六腑에 생긴 聚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大腸聚, 小腸聚, 膽聚, 胃聚, 膀胱聚, 三焦聚를 말하였고, 七癥은 蛟癥, 蛇癥, 鱉癥, 肉癥, 髮癥, 蝨癥, 米癥 또는 蛟癥, 龍癥, 魚癥, 鱉癥, 獾癥, 狐癥, 蛇癥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八瘕는 青瘕, 黃瘕, 燥瘕, 血瘕, 脂瘕, 狐瘕, 蛇瘕, 鱉瘕라 하였다. 이 八瘕를 《醫方類聚》에는 蛟龍瘕, 蛇瘕, 鱉瘕, 肉瘕, 髮瘕, 蝨瘕, 虎瘕, 米瘕라 하였다.

11) 李中梓 : 醫宗必讀, 서울, 文光圖書公司, 1976, pp.260~261

II. 연구방법 및 본론

1. 연구방법

- 1) 文獻을 통해 心積과 腎積의 개념 및 形態, 症狀, 形成過程 등을 살펴보았다.
- 2) 文獻을 통해 心積과 腎積의 治療에 대해 살펴보았다.

2. 心積과 腎積의 개념에 관한 文獻 考察

心積과 腎積이란 말은 《難經》에 처음으로 출현하는데, 앞서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그 개념은 이미 《內經》이전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難經》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다. 《難經》에서 언급한 心積, 腎積에 대한 내용은 그 別稱과 部位, 形態, 發生過程, 傳病過程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¹²⁾

그런데 內經에서는 《素問·腹中論篇》과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心積의 별칭인 伏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래의 내용이 《腹中論》에 있는 내용이다.¹³⁾

12) 扁鵲 著 滑壽 注 : 前揭書 p.492 ; 《難經·五十六難》에서 “...心之積名曰伏梁, 起臍上, 大如臂, 上至心下. 久不愈, 令人病煩心. 以秋庚辛日得之. 何以言之. 腎病傳心, 心當傳肺, 肺以秋適王, 王者不受邪, 心復欲還腎, 腎不肯受, 故留結爲積, 故知伏梁以秋庚辛日得之 ;

13) 洪元植譯 : 黃帝內經素問, pp.241~242 ; 《素問·腹中論篇》에 “帝曰: 病有少腹盛, 上下左右皆有根, 此爲何病. 可治不. 岐伯曰:

《素問·腹中論篇》

帝께서 가라사대 “病으로 小腹이 盛함이 있고 上下左右에 모두 根이 있으면 이는 무슨 病이 되며 가히 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岐伯이 가로되, “病名은 伏梁이라고 합니다.” 帝께서 가라사대 “伏梁은 무엇을 원인하여 得합니까?” 岐伯이 가로되, “大膿血을 藏한 것이 腸胃의 外에 居하여 가히 治하지 못하니 이를 治하면 脾胃 氣를 切按함에 致死하게 됩니다.” 帝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岐伯이 가로되, “이것은 下로는 陰에 인하여 반드시 膿血이 下하고 上으로는 胃脘을 迫하여 滯을 出하게 하고, 俠胃脘內가 癰하니 이는 久病이라 治하기 어렵습니다. 臍上에 居하면 逆이 되고 臍下에 居하면 從이 되는데 動하여 자주 奪하지 말 것이니, 論이 《刺法》에 있습니다.” 帝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身體의 脾, 股, 脛이 모두 腫하고 臍를 環하여 痛함이 있는데 이는 무슨 病이 됩니까?” 岐伯이 가로되, “病名은 伏梁인데, 이는 風根이니, 그 氣가 大腸에서 溢하여 胃에 著하면 胃의 原은 臍下에 있으므로 臍를 環하여 痛하는데, 가히 動하지 못하니 動하면 水溺가 澇하여 病이 됩니다.”¹⁴⁾

病名曰伏梁。帝曰：伏梁何因以得之。岐伯曰：裹大膿血，居腸胃之外，不可治，治之，每切按之致死。帝曰：何以然。岐伯曰：此下則因 必下膿血，上則迫胃脘生滯，俠胃脘內癰，此久病也，難治。居臍上爲逆，居臍下爲從，勿動亟奪，論在刺法中。帝曰：人有身體脾股脛皆腫，環臍而痛，是爲何病。岐伯曰：病名伏梁，此風根也。其氣溢於大腸而著於胃，胃之原在臍下，故環臍而痛也。不可動之，動之爲水溺澇之病。”

위의 내용을 보면 伏梁이라는 것은 小腹이 성하고 上下左右에 모두 根이 있는 病을 말한다고 했으며, 그 原因은 腸外에 大膿血이 居한 것이라 했다. 또한 이것이 臍上에 居하면 逆이 되고 臍下에 居하면 從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臍를 環하여 痛한 病을 伏梁이라고 하였다. 결국 《素問·腹中論》에서 말하는 伏梁은 臍를 중심으로 腸外에 형성된 積을 의미하는데 그 影響이 上으로는 胃脘으로 影響을 미치고 下로는 脾, 股, 脛으로 影響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도 伏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靈樞·邪氣臟腑病形篇》

帝께서 가라사대, 請하여 問하건대, “脈의 緩, 急, 大小, 滑, 澇의 病形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가로되, “臣이 請컨대 五臟의 病變을 말하겠습니다. 心脈이 ... 微緩함은 伏梁이 心下에 在하여 上下로 行함에 때로 唾血함이 되며.”¹⁵⁾

위의 내용에서는 伏梁이 心과 關聯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難經에서 心과 伏梁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根據가 되는 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部分에서는 心下에 去하여 上下로 行하는 것을 伏梁이라고 하여 앞서의 《腹中

14) 上揭書, pp.244~245

15)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p.60, p.64 ;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黃帝曰：請問脈之緩急小大滑澇之病形何如。岐伯曰：臣請言五臟之病變也。心脈... 微緩爲伏梁，在心下上下行，時唾血。大甚爲喉疔，”

論》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嚴用和・濟生方》에서는 “猶梁之橫架於胸膈者”라고 하여 伏梁이라는 積이 胸膈에 橫으로 기둥보가 누워있는 모습에서 명칭이 유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張從政・儒門事親》에서는 伏梁을 火鬱이라하였고, 그 증상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둘이 《腹中論》에서 언급한 伏梁과 《邪氣臟腑病形論》에서 언급한 伏梁을 구분한 것으로 이것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腎積에 해당되는 奔豚에 대한 언급은 內經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앞서 伏梁에서와 같이 腎臟과 연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¹⁸⁾ 《難經・五十六難》에서 奔豚에

대해 그 別稱과 部位, 形態, 發生過程, 傳病過程 등에 대해 언급한 이래¹⁹⁾ 《傷寒論》에서는 “欲作奔豚”의 證을 언급하였고, “氣從小腹 上衝甚者”라 小腹에서 上衝하는 것을 奔豚이라 하여 桂枝加桂湯을 응용하였다.²⁰⁾ 그리하여 역대 傷寒學파에서는 奔豚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金匱要略篇註》에서는 奔豚의 원인을 “從驚發”이라하여 정신적인 요인을 말하였고, 처방으로 奔豚湯을 제시하였다.²¹⁾

65 ; 《靈樞・邪氣臟腑病形篇》“帝께서 가라사대, 請하여 問하건대, “脈의 緩, 急, 大小, 滑, 澁의 病形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가로되, “臣이 請컨대 五臟의 病變을 말하겠습니다. ... 腎脈이 微急함은 沈厥奔豚으로 足을 不收하고, 前後를 得하지 못함이 되며”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黃帝曰: 請問脈之緩急大小滑澁之病形何如. 岐伯曰: 臣請言五臟之病變也.....腎脈 ... 微急爲沈厥賁豚, 足不收, 不得前後.”

16) 嚴用和 : 濟生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11., pp.743-483 ; “在心曰伏梁 ... 伏梁之狀 起於臍下 其大如臂 上至心下 猶梁之橫架於胸膈者 是爲心積 診其脈沈而扎 其色赤 其病腹熱面赤 咽乾 心煩甚則 吐血 令人食少肌瘦” ;

17) 張從政 : 儒門事親,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13., pp.745-156~157 ; “心之積名曰伏梁, 起於臍 大如臂 上至心下 久不已 令因病煩心.... 伏梁者 火之鬱也. 以熱藥散之則益甚, 以火灸之則彌聚. 況伏梁證有二 名同而實異 不加不詳焉. 其一伏梁 上下左右皆有根, 在腸胃之外 有大膿血 此伏梁義同肚癰. 其一伏梁 身體脾股胛皆腫 環臍而痛是爲風根不可動 動則爲水溺瀦之病 此二者 內經雖言不可動 止謂不可大下 非謂全不可下 恐病去而有害.” ;

18)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p.61, pp.64~

19) 扁鵲 著 滑壽 注 : 前揭書 p.492 ; 《難經・五十六難》에서 “... 腎之積名曰賁豚, 發於少腹, 上至心下, 若豚狀, 或上或下無時. 久不已, 令人喘逆, 骨疼, 少氣. 以夏丙丁日得之. 何以言之. 脾病傳腎, 腎當傳心, 心以夏適王, 王者不受邪, 腎復欲還脾, 脾不肯受, 故留結爲積, 故知賁豚以夏丙丁日得之.”

20) 李培生 主編 : 前揭書 p.127, p.124 ; “發汗後 其人 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 主之.”, “燒鍼 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小腹 上衝心者 灸其核上 各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三兩.”

21) 張仲景 著, 徐彬 注 : 金匱要略篇註,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3, pp.734-68~69 ; 《金匱要略篇註・奔豚氣病脈證治篇》 “師曰 病有奔豚 有吐膿 有驚怖 有火邪 此四部病 從驚發得之. 師曰 奔豚病 從少腹起上衝咽 發作欲死 復環止 皆從驚恐得之. 奔豚 氣上衝

또한 發汗後 燒針으로 인해 땀을 흘려 被寒함으로써 核이 形成되어 赤色을 띠면 奔豚이 된다고 하여 燒針의 誤謬로 인해 奔豚이 발생한다고하여 桂枝加桂湯을 제시하였다.²²⁾

《張從政·儒門事親》에서는 腎이 骨을 主하기 때문에 腎積이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治療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²³⁾

《戴思恭·證治要訣》에서는 難經에서 제시한 喘咳, 骨痠, 少氣의 증상과 달리 “饑見飽減 小腹急腰痛口乾 目昏骨冷 久則骨痠”²⁴⁾을 제시하였다.

《巢元方·諸病源候論》에서는 奔豚의 原因을 “起于恐驚 憂思所生”이라 하여 憂思의 精神的 要因이 奔豚을 발생시키는 過程을 설명하고 있다. ²⁵⁾

胸 腹痛 往來寒熱 奔豚湯主之. 奔豚湯方 甘草 芎藭 當歸各二兩 半夏四兩 黃芩二兩 生葛五兩 芍藥二兩 生薑四兩 甘李根白皮一升.”

22) 上揭書 p.69 ; “發汗後燒鍼 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少腹上至心 灸其核上各一壯 與桂枝加桂湯主之.”

23) 張從政 : 前揭書, pp.745-156~157 ; “... 奔豚者 賁如奔同 銅人言 或因讀書得之未必皆然也. 腎主骨 此積最深難療.” 大忌吐涌 以在其下止宜下之. 故予嘗以獨聖散吐肥氣, 搦以木架 必煥室中吐兼汗也 ... 嘗治奔豚 以導水通經 三日一下之一月十下 前後百行 次用活血化氣磨積之藥 調之此積雖不傷人 亦與人偕老.”

24)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87, 卷316, p.131 ; 《戴思恭·證治要訣》에 “... 腎積發於小腹 奔上至心 上下無時 如奔豚走 饑見飽減 小腹急腰痛口乾 目昏骨冷 久則骨痠 名曰 奔豚 宜大七氣湯 配桂加茴香, 炒棘子肉 各半錢.”

25) 巢元方 : 諸病源候論,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9.,

《成無已·注解傷寒論》에서는 腎氣가 逆하여 欲上凌心한다고 하였다.²⁶⁾

《方有熱·傷寒論條辨》에서는 腎積이 내재된 素因에서 鍼穴을 통해 寒氣가 들어왔을 때 奔豚證이 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²⁷⁾

《喻昌·尚論篇》에서는 奔豚의 名稱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豚이 北方亥의 위치이므로 北方에 해당하는 腎과 연결시켰음을 설명한다.²⁸⁾

《黃元御·傷寒說意》에서는 歷代醫家들의 내용을 모두 섭렵하였으며, 咽喉閉塞과 七竅火發의 증상을 말하였고, 原因을 表泄로 陽虛한 상태에서 鍼孔를 통해 寒氣가 들어와 核이 형성된 것으로 外感閉束하여 風木이 鬱沖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灸法을 제시하였다. 또한 下한 後陽虛한 상태에서 下焦의 陰氣가 上衝한 것을 奔豚이라고 하여 桂枝加桂湯을 제시하였다.²⁹⁾

pp.734-651 ; “夫奔豚氣者 腎之積氣 起于驚恐 憂思所生. 若驚恐則傷神 心藏神也 憂思則傷志 腎藏志也 神之傷動 氣積于腎 而氣下上游走如豚之奔 故曰奔豚”

26) 劉渡舟 編著 : 傷寒論辭典, 서울, 醫聖堂, 1991., p.265 ; 《成無已·注解傷寒論》 “腎之積 名曰奔豚 發則從少腹上至心下 爲腎氣逆 欲上凌心”

27) 上揭書, p.265 ; 《方有熱·傷寒論條辨》 “奔豚, 證發作之狀也. 盖人之素有腎積者 因針穴處寒得入之 其積遂發 則氣自少腹上逆而沖心. 狀若驚豚突前而奔走 故曰奔豚也.”

28) 喻昌 : 尚論篇,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3. Vol51, pp.783-32 ; “奔豚者 腎邪也. 腎邪一動 勢必自少腹上逆而沖心 狀若豚突 以北方亥位屬猪故也.”

29) 黃元御 : 黃元御醫書10種(中)-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70 ; “奔豚之發, 起于少腹, 直犯心胸 衝突擊撞, 其痛

《何元長·傷寒辨類》에서는 奔豚의 原因을 腎臟의 內氣가 虛한 상태로 水氣가 흠어지지 못한 것이라 했다.³⁰⁾

이상의 心積인 伏梁과 腎積의 奔豚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部位 및 形態

書名	心積
內經	有少腹盛 上下左右皆有根 裹大膿血, 居腸胃之外, 居臍上, 居臍下, 環臍(著於肓), 在心下上下行
難經	起臍上 大如臂, 上至心下
傷寒論	
金匱要略	
濟生方	起於臍下 其大如臂 上至心下 猶梁之橫架於胸膈者
儒門事親	起於臍 大如臂 上至心下
證治要訣	起臍下 直至心 大如臂
醫學入門	臍上

不止, 咽喉閉塞, 七竅火發, 病之最凶惡者 宜苓桂甘棗湯 泄濕培土 補脾精而達木鬱也. 凡燒針取汗 表泄陽虛 針孔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緣外感閉束 風木鬱沖之故. 宜先灸核上各一壯 散其外寒 以桂枝加桂湯 疏木而下沖也. 至于下後陽虛 下焦陰氣上衝者 亦奔豚之證 悉宜桂枝加桂湯也.”

30) 劉渡舟 編著 : 前揭書, p.265 ; 《何元長·傷寒辨類》 “奔豚者 因腎臟之氣內虛 水氣不散, 水與氣搏 卽發奇豚 以其氣動衝突 如江豚之狀 不宜汗下, 用理中去朮 加桂, 苓. 蓋白朮燥腎閉氣, 故去之. 桂枝能泄奔豚, 茯苓能伐腎邪 故加之.”

書名	腎積
內經	
難經	發於少腹 上至心下 若豚狀 或上或下無時.
傷寒論	氣從小腹 上衝心者
金匱要略	從少腹起上衝咽 發作欲死 復環止
濟生方	發於小腹痛 上至心下 上下無時 有若豚走之狀
儒門事親	發於小腹痛, 上至心下, 若豚狀 或上或下無時
證治要訣	發於小腹痛 奔上至心 上下無時 如奔豚走
注解傷寒論	發則從少腹上至心下 證發作之狀也.
傷寒論條辨	則氣自少腹上逆而沖心. 狀若驚豚突前而奔走
尙論篇	勢必自少腹上逆而沖心 狀若豚突
傷寒說意	起于少腹, 直犯心胸 衝突擊撞, 其痛不止,
傷寒辨類	卽發奇豚 以其氣動衝突 如江豚之狀
醫學入門	發於小腹痛 或凌心下 若豚之奔衝上下無時

2) 病因病理

書名	心積
內經	下則因 必下膿血, 上則迫胃脘生隔, 俠胃脘內癰, 此久病也, 難治
難經	以秋庚辛日得之 腎病傳心, 心當傳肺, 肺以秋適王, 王者不受邪, 心復欲還腎, 腎不肯受, 故留結爲積
傷寒論	
金匱要略	
濟生方	有如憂思喜怒之氣 人之所不能無者 過則傷乎五藏 逆於四時 傳克不行乃留結而爲五積
儒門事親	火之鬱也, 以熱藥散之則益甚, 以火灸之則癰聚
醫學入門	火鬱

書名	腎積
難經	以夏丙丁日得之 脾病傳腎, 腎當傳心, 心以夏適王, 王者不受邪, 腎復欲還脾, 脾不肯受, 故留結爲積
傷寒論	燒鍼 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金匱要略	從驚發得之
濟生方	有如憂思喜怒之氣 人之所不能無者 過則傷乎五藏 逆於四時 傳克不行乃留結而爲五積
諸病源候論	起于驚恐 憂思所生 若驚恐則傷神 心藏神也 憂思則傷志 腎藏志也 神之傷動 氣積于腎 而氣下上游走如豚之奔
注解傷寒論	爲腎氣逆 欲上凌心
傷寒論條辨	蓋人之素有腎積者 因針穴處寒得入之 其積遂發
傷寒說意	咽咽閉塞, 七竅火發 燒鍼取汗 表泄陽虛 針孔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緣外感閉束 風木鬱中故 下後陽虛 下焦陰氣上衝者 亦奔豚之證
傷寒辨類	因腎臟之氣內虛 水氣不散, 水與氣搏

3) 症狀

書名	心積
內經	人有身體脾股胕皆腫, 環齊而痛 時唾血. 大甚爲喉呿
難經	久不已 令人病煩心
金匱要略	
濟生方	診其脈沈而芤 其色赤 其病腹熱面赤 咽乾 心煩甚則 吐血 令人食少肌瘦
儒門事親	久不已 令因病煩心
證治要訣	腹熱咽乾心煩 甚則吐血
醫學入門	煩心

書名	腎積
內經	足不收, 不得前後.”
難經	令人喘逆, 骨痿, 少氣.
金匱要略	氣上衝胸 腹痛 往來寒熱
濟生方	診其脈沈而急其色黑 其病饑則見 飽則減 小腹裏急 腰痛口乾目昏骨冷 久不愈令人骨痿少氣
儒門事親	久不已 令人喘逆骨痿少氣....
證治要訣	饑見飽減 小腹急腰痛口乾 目昏骨冷 久則骨痿
醫學入門	喘逆, 骨痿, 最爲難治

3. 心積과 腎積의 治療法에 관한 文獻의 내용

《內經》에서 積의 치료에 관한 내용을 보면,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大積大聚 其加犯也 衰其半而已”³¹⁾라고 하여 큰 積은 한꺼번에 다 없앨 필요가 없음을 말하였다. 《靈樞·衛氣篇》에서는 “새로 생긴 積이 통증이 있으면 쉽게 낫고, 통증이 없으면 쉽게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³²⁾ 또한 《靈樞·衛氣失常篇》에서는 胸中에 積이 있으면 上에서 이를 取하고, 腹中에 있으면 下取하고 上下가 모두 滿하면 傍取하라 하였다. 積이 上에 있으면 人迎, 天突, 喉中을 瀉하고, 積이 下에 있으면 三理와 氣街를 瀉하라고 하였다. 上下가 모두 滿한 者는 上下를 取하고, 季脇下 1寸處를 取穴한다고 하였다.³³⁾

31) 洪元植 譯 : 黃帝內經素問, pp.244~245

32) 上揭書 pp.360~361 ; “及有新積. 痛可移者, 易已也, 積不痛, 難已也.”

33)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pp.384~385 ; “曰: 其氣積於 胸中者, 上取之. 積於腹中者, 下取之. 上下皆滿者, 傍取之. 黃帝曰: 取之奈何. 伯高對曰: 積於上, 瀉人迎天突喉中. 積於下者, 瀉三里與氣街. 上下皆滿者, 上下取之, 與季脇之下寸. 重者, 難足取之,

《素問·長刺節論篇》에서는 小腹에 積이 있으면 皮髑아래로 小腹에 이르기까지 刺하여 그치고 아울러 俠脊 兩傍의 四椎間을 刺하고 兩髂膠와 季脇肋間을 刺하여 腹中의 氣를 導引하여 일이 하하면 된다고 하였다.³⁴⁾

《傷寒論》에서는 “欲作奔豚”에 茯苓桂枝甘草大棗湯이 主하고, 奔豚증에는 桂枝加桂湯을 투여한다고 하였다.³⁵⁾

《張潔古·活法機要》에서는 積의 治療法에 ‘養正則 邪自除’의 治療原理를 제시하였다. 곧 건강한 사람은 積이 없고, 허약한 사람이 積이 있기 때문에 磨堅破結之藥으로 치료를 하면 질병이 비록 사라지더라도 그 사람 역시 衰한다고 하였고, 乾漆, 硃砂, 三稜, 大黃, 牽牛之類의 藥을 조금씩 사용하고, 過하게 사용하면 氣가 消盡되니 積의 治療는 당연히 養正則 積自除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眞氣가 實하고 胃氣가 强하면 積이 스스로 제거가 된다고 하였다.³⁶⁾

診視其脈大而弦急, 及絕不至者, 及腹皮急甚者, 不可刺也. 黃帝曰: 善.”

34) 洪元植 譯: 黃帝內經素問, p.315; “病在少腹有積, 刺皮髑以下, 至少腹而止, 刺俠脊兩旁四椎間, 刺兩髂膠季脇肋間, 導腹中氣熱下已”

35) 李培生 主編: 前揭書, p.127, p.124; “發汗後 其人 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 主之.”, “燒鍼 令其汗 鍼處被寒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小腹 上衝心者 灸其核上 各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三兩.”라 함.;

36) 醫部全錄, 卷316, p.129; 《張潔古·活法機要》; “壯人無積 虛人則有之. 脾胃怯弱, 氣血兩衰 四時有感, 皆能成積 若遽以磨堅破結之藥治之 疾須去而人已衰矣. 乾漆硃砂三稜大黃牽牛之類 用時則暫快 藥過則依然

《張從政·儒門事親》에서는 伏梁의 治療에 먼저 茶調散으로 吐하고 禹功散으로 汗을 兼하여 導水奪之 하고 계속해서 降火의 藥으로 調하라 했다. 奔豚의 治療法에 吐法을 크게 禁하였으며, 奔豚의 治療法으로 導水通經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活血化氣磨積의 藥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³⁷⁾

《戴思恭·證治要訣》에서는 積聚는 破塊藥으로 效果를 못보며, 行飲하는 導痰湯으로 치료해야 하며, 또한 多飲人이 肚腹에 積塊를 형성해 脹急疼痛 全身腫滿肌黃, 食少하면 十味大七氣湯을 紅酒로 煎服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心積에는 大七氣湯에 加石菖蒲半夏各半錢, 腎積에는 大七氣湯倍桂加茴香, 炒棟子肉各半錢이라 하였다.³⁸⁾

氣愈消 疾愈大 竟何益哉! 故治積者 當先養正則積自除. ... 但令其眞氣實 胃氣强 積自除 實中有積 大毒之劑治之 尚不可過 況虛而有積者乎 此治積之一端也. 邪正盛衰 固宜詳審.”

37) 張從政: 前揭書, pp.745-156~157; “... 心之積 名曰伏梁 ... 嘗治伏梁 先以茶調散吐之 兼汗以禹攻導水奪之 繼之以降火之藥調之 ... 腎之積名曰奔豚 ... 大忌吐涌 以在其下止宜下之. 故予嘗以獨聖散吐肥氣, 搯以木架 必煥室中吐兼汗也 ... 嘗治奔豚 以導水通經 三日一下之一月十下 前後百行次用活血化氣磨積之藥 調之此積雖不傷人 亦與人偕老.”

38) 醫部全錄, 前揭書, p.131; 《戴思恭·證治要訣》에 “有飲癖結成塊 在腹脇之間 病類積聚 用破塊藥多不效 此當行其飲 宜導痰湯 何以知爲飲? 其人先曾病瘧 嘔吐涎沫積水 或素來多痰者 是也. 又多飲結成酒癖 肚腹積塊脹急疼痛 或全身腫滿 肌黃少食 宜十味大七氣湯 用紅酒煎服”

《李梴·醫學入門》에서는 心積은 熱藥과 灸法을 忌한다고 하였고, 모든 積의 治療에 吐法과 下法은 眞氣를 消耗하면서 積은 除去되지 않는다고 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奔豚은 더욱더 吐法을 쓰면 안된다고 하였고, 五積의 治方으로 현재는 增損五積丸을 쓴다 하였다. 또한 積初期에는 寒하기 때문에 辛溫消導시키는 大七氣湯, 烏白丸의 類를 쓰고, 오래 되면 熱하기 때문에 辛寒推蕩하여 木香檳榔丸, 通元二八丹의 類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陽虛有積은 易治하고 陰虛는 難以峻補하라고 하였다. 39)

《李中梓·醫宗必讀》에서는 ”積을 치료할 때 급히 치료하지 말고 初, 中, 末 3단계로 구분하여 初期는 正氣가 더 强하므로 攻法을 쓰고, 中者는 邪氣가 비교적 깊으니 補와 攻을 같이 쓰고 末者는 病이 오래 된 것이니 補를 主로 하라고 하였다. 또한 甘溫之劑로 健運脾土하여 잔여의 積을 치료할 수 있으니, 攻法으로 積이 완전히 없도록 치료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40)

39) 李梴 : 編注醫學入門, 서울, 醫聖堂, 1994. p.826 ; “... 乃火之鬱也 忌熱藥與灸 ... 諸積勿輕吐下 徒損眞氣積亦不去. 奔豚尤不可吐 五積古有五方 今增損五積丸更妙 ... 積初爲寒 宜辛溫消導 大七氣湯烏白丸之類 久則爲熱 宜辛寒推蕩 木香檳榔丸通元二八丹之類 ... 陽虛有積易治 惟陰虛難以峻補.”;

40) 李中梓 : 前揭書, pp.255~256 “然攻之太急 正氣前傷, 初中末之三法 不可不講也. 初者病邪初起, 正氣尙强 邪氣尙淺 則任受攻中者 受病漸久 邪氣較深 正氣較弱 任受且攻且補 末者 病魔經久 邪氣侵凌 正氣消殘 則 任受補”, “純與甘溫調養, 使脾土健運 則破殘之餘積. 不攻自走 必欲攻之無餘, 其不

《喻昌·尚論篇》에서는 奔豚이 腎邪이므로 北方腎邪는 南方의 桂枝가 能히 伐할 수 있다하여 奔豚에 桂枝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41)

《張景岳·景岳全書》에서는 脾腎不足과 虛弱失調한 사람이 積聚의 病이 많으므로, 脾虛하면 五味異功散을 쓰며 혹 養中煎, 溫胃飲, 歸脾湯의 類를 쓰고, 肝腎이 虛한 者는 理陰煎, 腎氣丸, 煖肝煎의 類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治積의 要는 攻補의 마땅함과, 緩急을 判斷하는 것이라고 하여 積이 오래되지 않아 元氣가 未損한데 緩治를 하면 그 세력을 키워 오히려 制壓하기 힘들므로 급히 速攻을 하여야 하고, 積이 오래되어 元氣가 虛한데 攻法을 쓰면 胃氣가 切하여 上하게 된다고 하였다. 42)

遣人天殃者 鮮矣”

41) 喻昌 : 前揭書, p.783-32 ; “奔豚者 腎邪也. 腎邪一動 勢必自少服上逆而沖心 狀若豚突 以北方亥位屬猪故也. 北方腎邪 惟桂能伐之 所以用桂三倍 加入桂枝湯中. 外解風邪 內泄陰氣也”

42) 張景岳 : 景岳全書(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7. p.479 ; “凡脾腎不足 及虛弱失調之人 多有積聚之病 蓋脾虛則中焦不運 腎虛則下焦不化 正氣不行 則邪滯得以居之. ... 凡虛在脾胃者 宜五味異功散 或養中煎溫胃飲歸脾湯之類主之. 虛在肝腎者 宜理陰煎腎氣丸煖肝煎之類 酌而用之 治積之要 在知攻補之宜. 而攻補之宜 當於孰緩孰急中辨之. 凡積聚未久而元氣未損者 治不宜緩. 蓋緩之則養成其勢 反以難制 此其所急 在速攻可也. 若積聚漸久 元氣日虛 此而攻之 則積氣本遠 攻不易及 胃氣切近 先受其傷 愈攻愈虛則不死於積而死於攻矣.”

Ⅲ. 考察

1. 心積과 腎積의 개념 이해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心積에 해당되는 伏梁은 그 發生部位 및 形態가 臍部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心下에까지 미친 것으로 팔뚝크기의 기둥이 누워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發病原因은 膿血이居한 경우, 火가鬱하여 不散한 경우, 腎病이 傳病하는 과정에서 正邪가 相搏함으로써 형성된 경우로 보고 있다. 그 증상으로는 脾股肱皆腫, 環齊而痛, 時唾血, 煩心, 脈沈菴, 腹熱, 面赤, 咽乾, 食少, 肌瘦, 甚則吐血, 大甚爲喉吟 등의 증상을 발현한다.

腎積인 奔豚은 그 발생부위가 小腹에서發한 것으로 그 형태가 마치 돼지가 달려가는 듯한 모양으로 心下까지 上衝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한 증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發病原因은 脾病이 傳變되는 과정에서 正邪가 相搏하여 형성되거나, 陽虛한 상태에서 燒鍼 또는 下法으로 인하여 被寒함으로써 형성된다. 또한 “起于驚恐 憂思所生. 若驚恐則傷神 心藏神也 憂思則傷志 腎藏志也 神之傷動 氣積于腎 而氣下上游走如豚之奔”이라 하여 “恐驚”이라는 정신적 요인이 奔豚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 증상으로는 足不收, 不得前後, 骨痠, 少氣, 氣上衝胸, 腹痛, 往來寒熱, 脈沈而急, 饑則見 飽則減, 小腹裏急, 腰痛, 口乾, 目盾, 骨冷등의 증상을 발현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心積인 伏梁의 경우 發生部位가 臍部以上이고, 腎積인 奔豚의 경우 發生部位가 小腹이라는 차이점

을 보이고 있으나 그 上衝하는 것이 心下까지 미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증상을 비교해 보면 伏梁의 경우 唾血, 煩心, 面赤, 咽乾, 喉吟 등을 볼 때 주로 上焦에 발현하는 火熱狀을 띠고 있고, 奔豚의 경우는 足不收, 不得前後, 腹痛, 小腹裏急, 腰痛, 骨冷 등의 下焦에 寒狀을 주로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伏梁은 上熱의 症狀이 爲主가 되고, 奔豚은 下寒의 症狀이 爲主가 된다. 이는 臨床上 上熱下寒의 증상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 上熱下寒의 증상이 水火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증상임을 볼 때, 心과 腎 또한 水火와 관련된 장부이니 心積, 腎積이 水火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결국은 하나의 증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지 그 주증의 발생부위가 上焦爲主나, 下焦爲主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腎積의 發生樣相이 더욱 격렬한 것을 볼 때 臍部에서 발생한 心積이 小腹까지 형성되어 腎積으로發한 것이며, 心積의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 腎積이라 판단할 수 있다.

2. 文獻上으로 언급된 心積, 腎積의 治療法

문헌상에 나타난 心積, 腎積의 치료법으로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大積大聚 其加犯也 衰其半而已”⁴³⁾라고 하여 心積, 腎積과 같이 오래된 大積은 그 치료가 반만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을 밝혔고, 《靈樞·衛氣篇》에서는 “새로 생긴 積이 통증이 있으면 쉽게 낫고, 통증이 없으면 쉽게 낫지 않는다”고⁴⁴⁾ 한 것을

43) 洪元植 譯 : 黃帝內經素問, pp.244~245.

볼 때 큰 積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절반만 제거되면 되고, 이러한 積은 통증도 미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靈樞·衛氣失常篇》에 “胸中積에 人迎, 天突, 喉中瀉하, 下積에 三理와 氣街瀉下, 上下滿者 季脇下1寸處”라고 한 것과⁴⁵⁾ 《素問·長刺節論篇》에서 小腹積에 俠脊 兩傍의 四椎間을, 兩髂髂와 季脇肋間을 刺“라고 한 것 등으로 그 구체적인 治療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內經이후의 문헌에서는 針灸治療法보다 주로 藥物治療法을 제시하고 있다. 張潔古가 《活法機要》에서 ‘養正則 積自除’의 治療原理를 제시하여 積의 치료에 正氣를 補함을 강조한 이래로 제가들이 이 原則을 중요시여겨 正邪의 相關關係를 많이 다루었다. 그리하여 張景岳은 積의 치료에 攻과 補의 적절함, 緩急의 時期判斷을 잘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李中梓는 이러한 관계를 初, 中, 末 3단계로 구분하여 初期는 正氣가 強할 때는 攻法을 위주로 積을 제거하고, 中期에 邪氣가 비교적 깊을 때는 補와 攻을 같이 쓰고, 末에 병이 오래되었을 때는 補를 爲主로 사용하라 하였다.⁴⁶⁾ 이를 李

梴은 《醫學入門》에서 “積初期에는 寒하기 때문에 辛溫消導시키고, 오래되면 熱하기 때문에 辛寒推蕩하여야 한다고 하여 初病과 久病을 寒熱로써 구분하였다.⁴⁷⁾

그러나 積의 치료에 있어서 戴思恭은 證治要訣에서 破塊藥은 效果가 없고, 行飲시켜야 한다고 하여 破積法을 중요시여기지 않고 導痰湯을 쓸 것을 주장하였고, 李梴은 모든 積의 治療에 吐法과 下法은 眞氣를 消耗하면서도 積은 除去되지 않는다고 아예 禁해야 한다고 하여 초기에 쓰는 攻法마저도 禁하였다. 더욱이 奔豚은 더욱더 吐法을 쓰면 안된다고 하였다.

心積과 腎積의 치료에 있어서는 張從政의 儒門事親에서는 伏梁의 治療에 먼저 茶調散으로 吐하고 禹功散으로 汗을 兼하여 導水奪之한다고 하여 오히려 吐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降火의 藥으로 調하라 했다. 李梴은 心積은 熱藥과 灸法을 忌한다고 하였다. 또한 戴思恭은 心積의 치료에 大七氣湯에 加石菖蒲半夏各半錢을 제시하였다.

腎積의 치료에 있어서 張從政은 奔豚의

44) 上揭書 pp.360~361. ; “及有新積. 痛可移者, 易已也, 積不痛, 難已也.”

45) 上揭書, pp.384~385. ; “曰: 其氣積於 胸中者, 上取之. 積於腹中者, 下取之. 上下皆滿者, 傍取之. 黃帝曰: 取之奈何. 伯高對曰: 積於上, 瀉人迎天突喉中. 積於下者, 瀉三里與氣街. 上下皆滿者, 上下取之, 與季脇之下一寸. 重者, 難足取之, 診視其脈大而弦急, 及絕不至者, 及腹皮急甚者, 不可刺也. 黃帝曰: 善.” ;

46) 李中梓: 前揭書, pp.260~261. ; “然攻之太急 正氣前傷, 初中末之三法 不可不講也. 初者病邪初起, 正氣尙強 邪氣尙淺 則任受攻 中者 受病漸久 邪氣較深 正氣較弱 任受

且攻且補 末者 病魔經久 邪氣侵凌 正氣消殘則 任受補”, “純與甘溫調養, 使脾土健運則破殘之餘積. 不攻自走 必欲攻之無餘, 其不遺人夭殃者 鮮矣”

47) 醫部全錄, 前揭書, 卷316, p.129. ; 《張潔古·活法機要》“壯人無積 虛人則有之. 脾胃怯弱, 氣血兩衰 四時有感, 皆能成積 若遽以磨堅破結之藥治之 疾須去而人已衰矣. 乾漆硃砂三稜大黃牽牛之類 用時則暫快 藥過則依然 氣愈消 疾愈大 竟何益哉! 故治積者當先養正則積自除. ... 但令其眞氣實 胃氣強 積自除 實中有積 大毒之劑治之 尙不可過 況虛而有積者乎 此治積之一端也. 邪正盛衰固宜詳審.”

治療法에 吐法을 크게 禁하였으며, 奔豚의 治療法으로 導水通經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活血化氣磨積의 藥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⁴⁸⁾ 戴思恭은 大七氣湯에 倍桂加茴香炒棟子肉各半錢을 제시하였다. 《傷寒論》에서는 “欲作奔豚”에 茯苓桂枝甘草大棗湯을 쓰고, 奔豚에는 桂枝加桂湯을 제시하였는데⁴⁹⁾, 喻昌은 《尚論篇》에서 奔豚이 腎邪이므로 北方腎邪는 南方의 桂枝가 能히 伐할 수 있다하여 奔豚에 桂枝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⁵⁰⁾

이상을 종합해보면 心積과 腎積의 치료는 일반적인 積의 치료에 準하는데, 各醫家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 治療原則은 正과 邪의 상관관계에 따라 攻法과 補法을 적절히 구사하는 방법, 곧 正氣가 충실할 때는 攻法으로 積을 除去하고, 邪氣가 비교적

깊을 때는 補法과 攻法을 배합하고, 사기가 매우 깊어 正氣가 약해졌을 때는 步法을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이것은 곧 “養正則 積自除”로써 正氣를 補함으로 邪氣가 스스로 제거됨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心積, 腎積의 치료는 그 증상에 맞게 적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언급된 處方으로는 心積의 경우 茶調散, 禹功散, 大七氣湯에 加石菖蒲半夏各半錢, 腎積의 경우 桂枝加桂湯, 大七氣湯에 倍桂加茴香炒棟子肉各半錢 등이 언급되었다.

IV. 結論

이상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心積인 伏梁은 發生 部位가 臍部以上이고, 腎積인 奔豚은 小腹이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上衝하는 것이 心下까지 미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서로 연관된 疾患이다.
2. 文獻上으로 心積인 伏梁의 發病原因은 膿血이 居한 경우, 火가 鬱하여 不散한 경우, 腎病이 傳病한 경우이며, 그 증상은 髀股胻皆腫, 環齊而痛, 時唾血, 煩心, 脈沈芤, 腹熱, 面赤, 咽乾, 食少, 肌瘦, 甚則 吐血, 大甚爲喉吟 등이다.
3. 文獻上으로 腎積인 奔豚의 發病原因은 脾病이 傳病한 경우, 陽虛한 상태에서 燒鍼 또는 下法으로 인하여 被

48) 張從政 : 前揭書, pp.745~156~157 ; “... 心之積 名曰伏梁 ... 嘗治伏梁 先以茶調散吐之 兼汗以禹攻導水奪之 繼之以降火之藥調之 ... 腎之積名曰奔豚 ... 大忌吐涌 以在其下止宜下之. 故予嘗以獨聖散吐肥氣, 擯以木架 必煥室中吐兼汗也 ... 嘗治奔豚 以導水通經 三日一下之一月十下 前後百行次用活血化氣磨積之藥 調之此積雖不傷人 亦與人偕老.”

49) 李培生 主編 : 前揭書, p.127, p.124 ; “發汗後 其人 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 主之.”, “燒鍼 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小腹 上衝心者 灸其核上 各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三兩.”라 함.

50) 喻昌 : 前揭書, p.783-32 ; “奔豚者 腎邪也. 腎邪一動 勢必自少腹上逆而沖心 狀若豚突 以北方亥位屬猪故也. 北方腎邪 惟桂能伐之 所以用桂三倍 加入桂枝湯中. 外解風邪 內泄陰氣也”

寒한 경우, 恐驚의 정신적인 경우 등이고, 그 증상으로는 足不收, 不得前後, 骨痠, 少氣, 氣上衝胸, 腹痛, 往來寒熱, 脈沈而急, 饑則見 飽則減, 小腹裏急, 腰痛, 口乾, 目盾, 骨冷 등이다.

4. 心積과 腎積의 치료는 “養正則 積自除”를 원칙으로 功法和 步法을 적절히 조절함에 있다.

V. 參考文獻

1.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2. 洪元植 譯 :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3. 扁鵲 著 滑壽 注 : 難經本意,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1.
4.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 雜病篇 卷之五-八
5. 李中梓 : 醫宗必讀, 서울, 文光圖書公司, 1976.
6. 嚴用和 : 濟生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11.
7. 張從政 : 儒門事親,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13.
8. 張仲景 著, 徐彬 注 : 金匱要略篇註,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3.
9.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87, 卷 316.
10. 巢元方 : 諸病源候論,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9.
11. 劉渡舟 編著 : 傷寒論辭典, 서울, 醫聖堂, 1991., p.265
12. 喻昌 : 尚論篇,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Vol.51.
13. 李梴 : 編注醫學入門, 서울, 醫聖堂, 1994.
14. 張景岳 : 景岳全書(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7.
15. 金匱要略篇註,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6. 李培生 主編 :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7. 黃元御 : 黃元御醫書10種(中)-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